

脈經 卷三五臟의 虛·實·賊·微邪에 따른 脈象과 病證에 對한 研究 II

成百萬, 朴 炘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A Study on the Pulse Conditions and Symptoms of Diseases Related with Pathogenic Factor of Deficiency Type, Excess type, Zei Pathogenic Factor and Indistinct Pathogenic Factor of the Five Viscera in the Third Volume in the Maek Kyoung(脈經) II

Back-Man Sung, Kyung Park

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tiy

Background and purpose: Maek Kyoung(脈經) is a book written, compiled, and edited by Wang Hui circa 3 A.D. This book is the first technical book devoted to the diagnostics.

These are very important data but never make a special study and translate. so I hope this treatise can be great help to understand diagnosis study.

Methods: Maek Kyoung(脈經) consists of ten volumes, and the third volume consists of the five chapters, including inter-generation and inter-restriction of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entrails and prognosis of diseases. This treatise is made up of principal, notes, study and conclusion, we tried to make a translation faithful to the original.

Results and Conclusion: Chapter 3 refers to five things. The first is relation between spleen and stomach, the second is how to diagnose diseases by using intergeneration and inter-restriction of five elements, the third is roles of spleen that has an influence on four viscera through four seasons, the forth is the fact that quantity of gastroqi decides prognosis of diseases, and the fifth is that climate change has influence on the seriousness of diseases.

Chapter 4 refers to four things. The first is relation between lung and large intestines, the second is ordinary and extraordinary pulse condition of lung, the third is that pulse condition including its speed, and the forth is how to diagnose diseases by using intergeneration and inter-restriction of five elements and climate change.

Key Words: Maek Kyoung, pathogenic factor, the pulse conditions and symptoms of diseases

I. 緒 論

本 論文은 『素問』의 「陰陽應象大論」·「玉機眞藏論」·「平人氣象論」, 『靈樞』의 「本神」·「經脈」·「邪氣臟腑病形」, 『難經』의 「七難」·「十四難」·「十五難」·「二

十四難」, 『中藏經』, 『金匱要略』의 「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五臟風寒積聚病脈證病治第十一」등 篇에서 五臟六腑의 脈診에 관계되는 內容을 拔萃하여 정리한 『脈經·卷之三』의 3편과 4편을 研究한 것으로, 脾와 胃의 關係, 脾는 孤臟으로 四季에 붙어 왕성하고 四臟에 두루 通하며 脈象으로 虛實을 論하고 適宜함과 扨

· 접 수 : 2004년 6월 11일 · 심 사 : 2005년 7월 11일 · 채 택 : 2005년 7월 16일

· 교신저자 : 박 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Tel. 063-850-6839 E-mail : yongjae@wonkwang.ac.kr

證의 辨別은 五行의 相生과 相剋으로 질병의 順逆의 診斷, 胃氣의 多少로 질병의 豫後의 좋고 나쁨의 결정, 季節과 日時의 旺盛함과 衰弱함이 病勢의 輕重을 주관하는 것 등을 論한 「脾胃部第三」, 가을이 肺金을 主管하고 肺는 大腸과 表裏關係에 있음을, 肺의 正常脈은 微浮하면서 濇하고 이와 같지 않은 것은 肺의 病脈임을, 臟에는 遠近이 있고, 脈에는 遲疾이 있고, 陰陽의 度數는 시간으로 측정되며, 瘧疾 發作은 邪氣를 받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臟腑의 五行의 相生과 相剋이 四時의 順逆과 결합하여 질병의 輕重과 豫後를 미루어 診斷한다는 것 등을 論한 「肺大腸部第四」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論述들은 현재에도 『千金要方』, 『醫學入門』 등 각종 診斷學 文獻에 내용 의 全文 또는 要點이 拔萃 引用되는 重要한 資料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 중국에 서는 『脈經校釋』, 『脈經校注』, 『脈經新解』, 『脈經精譯』 등이 있으나 簡字로 된 것도 있고, 견해가 한결 같지 않으며, 古文·白話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워 국역이 필요하고, 『脈經』이 中國 外나라 사람 知聰에 의해 전해진 이후로 1500여년 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池田政一이 日本語로 해설한 『脈經』을 연구한 羅의 論文¹⁾이 있으나 校勘, 註釋이 결여되어 있어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더욱 詳細한 研究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方法으로 연구하여 診斷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1. 本 研究의 原文은 『南宋何大任本』²⁾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註文도 모두 收用하였다.
2. 懸吐는 傳來의 方法을 원칙으로 하였다.

1) 羅敬燦: 王叔和 脈經의 文獻의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서울, 1995

2)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3. 한 篇 가운데 필요에 따라 내용을 나누어 章名을 붙였다.

4.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였다.

5. 註釋은 有關 書籍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인용하여 國譯하였으며, 玉篇, 字典, 辭典에서 引用한 註釋은 考察 등 特別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公認된 내용으로 脚注를 省略하였으며, 俗字는 正字로 바꾸었고, 混用하여 쓰는 글자는 校勘을 생략하였다.

6.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로 校勘에는 ‘), 註釋에는 ‘()’, 引用文獻에는 ‘『』’, 引用篇과 論文에는 ‘『』’로 表示하였다.

III. 本論

第3篇 脾胃部第三

第1章 脾胃의 生理와 自然界와의 關係

【原文】

脾象土하고 與胃로 合爲府라 胃는 爲水穀之府⁽¹⁾라 其經은 足太陰이요 太陰은 脾之脈也라 與足陽明으로 爲表裏라 陽明은 胃脈이라 其脈은 緩이요 緩은 脾脈之大形也라 其相은 夏三月이요 火王하니 土相이라 王은 季夏六月이요 廢는 秋三月이요 囚는 冬三月이요 死는 春三月이라 其王日은 戊己요 王時는 食時日昃이라 困日은 壬癸요 困時는 人定夜半이라 其死日은 甲乙이요 死時는 平旦日出이라 並木時也라

其神은 意⁽²⁾요 其主는 味요 其養은 肉이요 其候는 口요 其聲은 歌요 其色은 黃이요 其臭는 香이요 其液은 涎⁽³⁾이요 其味는 甘이요 其宜는 辛이요 其惡는 酸이라

脾俞는 在背第十一椎요 募는 在章門이라 季肋端이 是라 胃俞는 在背第十二椎요 募는 在太倉⁽⁴⁾이라

右는 新撰이라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番號	書名	略稱	編著者	備考
1	脈經	脈經	何大任 校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錢本	錢熙祚 校	大孚書局, 臺南, 1985
3		華夏本	蔣力生 校注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4		大成本	張琨 等 校	中國醫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5		中醫藥本	吳承玉 等 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廣本	葉氏 校	元 葉氏廣勤書堂刻本, 脈經校釋 再引用
7		繆本	繆希雍 校	明 繆希雍本, 脈經校釋 再引用
8		朱本	朱錫穀 校	清 道光 13年 朱錫穀 原刊 脈經真本, 脈經校釋과 脈經校注 再引用
9		黃本	黃鉉 校	清 道光 23年 黃鉉 校本, 脈經校釋과 脈經校注 再引用
10		廖本	廖積性 校	清 道光 廖積性本, 脈經校釋 再引用
11		張本	張柯 校	清 咸豐 張柯 重刊 脈經真本, 脈經校釋 再引用
12		周本	周學海 校	清 光緒 17年 周學海 校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6
13		楊本	楊守敬 校	清 光緒 19年 楊守敬 刊本, 脈經校釋 再引用
14		四庫本	陳夢雷 等 編	醫部全書, 金泳出版社 影印, 서울, 1974
15		王叔和脈經	文光本	校著未詳
16		全錄本	陳夢雷 等 編	圖書集成醫部全錄, 大成文化社 影印, 서울, 1986
17	脈經校釋	校釋	福州市人民醫院	清 周學海 校本,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8	脈經校注	校注	沈炎南	南宋 何大任 校本,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19	脈經新解	新解	陳欽銘	國立中國醫藥研究所, 板橋, 1995
20	脈經精譯	精譯	黃志傑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21	難經本義	難經	滑 壽	集文書局, 台北, 1982
22	中藏經	中藏經	華陀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省, 1985
23	金匱要略	金匱	張 機 (李克光 主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24	黃帝內經素問靈樞	素問	新校正本	中華書局聚珍微宋版印, 臺北, 1992
25		靈樞		中華書局聚珍微宋版印, 臺北, 1972
26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中 針灸甲乙經	甲乙	皇甫謐(黃龍祥 等 校注)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7	醫經病原診法名著集成 中 諸病原候論	病源	巢元方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8	備急千金要方校釋	千金	孫思邈(李景榮 等 校釋)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8
	備急千金翼方校釋	千金翼		
29	黃帝內經太素	太素	楊上善	大星文化社, 서울, 1986

【註釋】

(1) 水穀之府(수곡지부); 胃를 가르킨다. 胃가 飲食物을 받아들이고 消化시켜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臟器라는 뜻에서 붙여진 名稱이다.

(2) 意(의); 心이 記憶하고 있는 것을 意라고 한다.³⁾

(3) 涎; 慕欲口液, 침 연

(4) 太倉(태창); 中腕穴의 異名이다. 위치는 臍上 4寸이다.

【國譯】

脾는 土를 본받고, 胃는 脾와 相合하며 그 府가 된다. 胃는 水穀의 府이다. 그 經脈은 足太陰이고 太陰은 脾의 經脈이다. 足陽明과 表裏가 된다. 陽明은 胃의 經脈이다. 그것의 脈狀은 緩이고, 緩脈은 脾脈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그것의 相은 夏三月, 火氣가 旺盛하므로 土의 相이 된다. 王은 季夏六月, 廢는 秋三月, 囚는 冬三月, 死는 春三月이다. 그것의 王日은 戊己日이고 王時는 辰時와 未時이다. 困日은 壬癸日이고 困時는 亥時에서 子時까지이다. 그것의 死日은 甲乙日이며 死時는 寅時에서 卯時 사이이다. 모두 木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그것의 神은 意이고, 그것이 主宰하는 것은 味이고, 기르는 것은 肉이고, 徵候는 口에 나타나고, 소리에 있어서는 歌, 色에 있어서는 黃色, 냄새에 있어서는 香, 體液은 涎, 味는 甘味, 좋아하는 맛은 辛味, 싫어하는 맛은 酸味이다.

脾俞는 등 第十一椎 아래에 있고 募穴은 章門이다. 季肋의 끝이 이것이다. 胃俞는 등 第十二椎 아래에 있고 募穴은 太倉이다.

이상은 새로 撰集한 것이다.

第2章

第1節 脾의 稟性과 脈狀

3) “心有所憶 謂之意”.

黃帝內經靈樞(王冰注); 中華書局聚珍倣宋版印, 臺北, 1972, p.51

【原文】

脾者는 土也니 敦(1)而福이라 敦者는 厚也니 萬物衆色이 不同이라 脾主水穀하니 其氣微弱하면 水穀不化라 脾는 爲土行이요 王於季夏라 土性은 敦厚하여 育養萬物하니 當此之時에 草木備具하야 枝葉이 茂盛하고 種類衆多하야 或靑黃赤白黑色이 各不同矣라 故로 名曰得1)이요 福者는 廣이니 土는 生養萬物하니 當此之時에 脾則同稟諸藏 故로 其德(2)爲廣大라 萬物이 懸(3)根住(4)莖하고 其葉이 在巔하며 蝮(5)蜚(6)蠹(7)動과 蚊(8)蠆(9)喘息이 皆蒙(10)土恩2)이라 懸根住莖3)은 草木之類也요 其次則蟻4)(11)蚘(12)幾(13)微之蟲이니 因陰陽氣變化而生者也라 喘息은 有血脈之類也라 言普(14)天之下에 草木昆蟲이 無不被蒙土之恩福也라 德則爲緩이요 恩則爲遲(15) 故로 令太陰脈이 緩而遲하야 尺寸으로 不同이라 太陰은 脾也니 言脾王之時에 脈緩而遲요 尺寸不同者는 尺遲而寸緩也라

【校勘】

- 1) 故名曰得; 「錢本」엔 ‘故名曰德’으로 되어 있다.
- 2) 皆蒙土恩; 『校注』엔 ‘皆蒙土思’로 되어 있으나 이는 本 論文과 같이 「何大任本」을 底本으로 하였기 때문에 ‘思’는 ‘恩’의 誤字이다.
- 3) 懸根住莖; 『校釋』, 『校注』엔 ‘懸根住莖’으로 되어 있다. 正文에 ‘懸根住莖’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 ‘仕’는 ‘住’字의 활자가 깨진 것이다.
- 4) 其次則蟻; 「錢本」, 「周本」엔 ‘其次則蟻’로 되어 있다.

【註釋】

- (1) 敦; 厚也, 도타울 돈
- (2) 德(덕); 公정하고 포용성 있는 마음이나 품성.
- (3) 懸; 繫也, 매달 현
- (4) 住; 立也, 설 주
- (5) 蝮; 蟻蟲也, 장구벌레 연
- (6) 蜚; 蟲名 負蟻, 버메뚜기 비
- (7) 蠹; 動也, 꿈틀거릴 연
- (8) 蚊; 蟲名, 갈거미 기

- (9) 蠶; 蟲名, 집게벌레 구
 (10) 蒙; 被也, 입을 몽
 (11) 蛾; 나방 아
 (12) 蚘; 蚘同, 모기 예
 (13) 幾; 多少之辭, 얼마 기
 (14) 普; 博也, 넓을 보
 (15) 遲(지); 遲脈, 遲脈은 1呼吸에 3번 搏動하는 脈象이다.⁴⁾

【國譯】

脾는 土에 屬하니 性質이 敦하면서 福하다. 敦은 두터운 것이니 萬物의 여러 색이 다양하다. 脾는 水穀을 주관하니 脾氣가 微弱하면 水穀이 消化되지 않는다. 脾는 五行中 土에 屬하고 季夏에 旺盛하다. 土의 性質은 敦厚하여 萬物을 기르니 바로 이때 草木이 모두 제 모습을 갖추어서 가지와 잎이 茂盛하고 蟲류가 매우 많아서 혹은 청색 또는 황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색깔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름을 득이라하고, 福은 넓다는 의미이니 土는 萬物을 나서 기르니 바로 이 때 脾는 곧 모든 臟에 똑같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 품성이 넓고 크다. 萬物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맨 꼭대기에도 잎이 나며 虵蜚가 蠕動運動을 하는 것과 蚊蠶 喘息(동물) 등 온갖 동물이 土의 恩德을 받는 것이다. 懸根生莖은 草木의 무리이고, 그 다음으로는 곧 蛾蚘 등 아주 작은 벌레의 무리니 陰陽의 氣의 變化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喘息은 血脈이 있는 동물의 무리다. 皆蒙土恩이란 넓은 천하에 草木과 昆蟲이 土의 恩福을 입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인체에 있어 脾의 稟性(德)은 緩脈으로 나타나고 恩德은 遲脈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太陰脈은 緩하면서 遲하여 尺과 寸이 다르다. 太陰은 脾에 屬하니 脾가 왕성한 시기에는 脈이 緩하면서 遲하다고 말하고, 尺寸으로 다르다고 한 것은 尺部는 遲하나 寸部는 緩하다는 것이다.

【考察】

‘尺遲而寸緩也’에서 ‘遲’는 『醫學入門』 遲脈條에 “반드시 脈을 찾아보아 힘이 없어야만 참으로 본래의 遲脈이다”⁵⁾고 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尺部의 脈이 無力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第2節 脾主五味

【原文】

酸鹹苦辛이 大 一作太¹⁾라 沙¹⁾ 一作涉²⁾이요 又作妙라 而生하고 互行其時에 而以各行하야 皆不群行하니 盡可常服이라 肝酸腎鹹心苦脾辛澹²⁾(3)은 皆四藏之味也라 脾主調和五味하야 以稟四藏하니 四藏은 受味於脾라 脾王之時에 其脈이 沙 一作涉이요 又作妙라 達於肌肉之中하야 互行人身軀라가 乃復各行하야 隨其四肢³⁾하야 使其氣周匝⁴⁾하고 榮諸藏府하야 以養皮毛하니 皆不群行至一處也라 故로 言盡可常服也라

【校勘】

- 1) 一作太; 「周本」엔 ‘一作土’로 되어 있다. 내용상 ‘周本’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 2) 脈辛澹; 「周本」, 『校注』엔 ‘肺辛澹’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周本」, 『校注』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
- 3) 隨其四肢; 「周本」, 『校注』엔 ‘隨其四肢’로 되어 있다.

【註釋】

- (1) 大沙(대사); 『校釋』에 “알기 어렵다. 小注에 ‘土涉’이라고 한 것을 좇아 해석한다. 이것은 脾土와 酸鹹, 苦, 辛 四味와의 관계를 가리킨다.”⁶⁾고 하였다.
- (2) 涉; 經也, 거칠 섭
- (3) 澹(색); 濁은 맛.

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79.

5) “必尋之無力 乃爲眞遲”.

李梴; 醫學入門, 大星文化史, 서울, 1990, p.392

6) “大沙費解. 擬從小注作土涉解. 此處指脾土和酸鹹苦辛四味關係”.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16.

(4) 匝: 周也, 두루 잡

【國譯】

酸鹹苦辛의 四臟의 味는 土를 거쳐 생겨나고 어떤 판본에는 ‘大’를 ‘太’라고 했다. 어떤 판본에는 ‘沙’를 ‘涉’, 또는 ‘妙’라고 했다. 土氣는 肝木 心火 肺金 腎水가 運行할 때에 각각 나누어져 운행되어 한 무리로 운행되지 않으니 酸鹹苦辛 모두를 늘 먹을 수 있다. 肝의 酸味, 腎의 鹹味, 心의 苦味, 肺의 辛味와 짙은맛은 四臟의 味다. 脾는 五味를 조화시켜서 四臟에 나누어주니 四臟은 脾에서 味를 받는다. 脾가 왕성한 시기에는 그 脈을 거쳐서(어떤 판본에는 ‘沙’를 ‘涉’, 또는 ‘妙’라고 했다) 肌肉 속으로 도달하여 서로 온몸으로行하다가 다시 나누어져 行하여 四肢를 따르며 그 氣가 주위를 돌게 하고 모든 臟腑에 영양을 공급하여 皮毛를 기르니 모두 무리져 한 곳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늘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第3節 脾肺의 病理와 治法

【原文】

土寒則溫하고 土熱則涼이요(1) 冬엔 陽氣在下하야 土中溫暖하고 夏엔 陰氣在下하야 土中清涼하니 脾氣도 亦然이라 土有一子하니 名之曰金이라 懷(2)挾(3)抱(4)之하야 不離其身이라 金乃畏火하야 恐熱來熏(5)하니 遂棄(6)其母하고 逃(7)歸水中(1)하면 水自(8)金子(2)而藏火神하니 閉門塞戶하야 內外不通하니 此謂冬時也라 陽氣在中하고 陽爲火行하니 金性畏火 故로 恐熏之요 金歸水中而避火也니 母子相得益盛이라 閉塞不通者는 言水氣充實하고 金在其中이니 此爲強固요 火無復得往刻之者는 神密之類也라 土亡(9)其子(3)면 其氣衰微하야 水爲洋溢(10)하야 浸漬(11)爲池니 一作 其地라 走擊(12)皮膚하야 面目浮腫하고 歸於四臍(13)라 此는 爲脾之衰損이라 土以防水나 今土弱而水強 故로 水得陵(14)之而妄行이라 愚醫見(15)水에 直往下之하야 虛脾空胃면 水遂居(16)之하야 肺爲喘浮라 脾胃已病하면

宜扶養其氣라야 通利水道나 愚醫不曉而往下之면 此爲重傷이니 水氣遂更陵之하고 上侵胸中하야 肺得水而浮하니 故로 言喘浮라

【校勘】

1) 逃歸水中; 『千金』 「卷十五上 脾臟脈論第一」엔 ‘逃于水中’으로 되어 있다.

2) 水自金子; 「卷十五上 脾臟脈論第一」엔 ‘水爲金子’로 되어 있다.

3) 土亡其子; 「卷十五上 脾臟脈論第一」엔 ‘土失其子’로 되어 있다.

【註釋】

(1) 土寒則溫, 土熱則涼; 겨울에는 기후가 寒冷하여 陽氣가 收藏하여 아래에 있어 토양 깊은 곳은 반대로 溫暖하기 때문에 ‘土는 기후가 차면 따뜻하다’고 하고, 여름에는 기후가 뜨거워서 陽氣가 위로 發泄하고 陰氣는 아래에 있어 토양의 깊은 곳은 반대로 서늘하기 때문에 ‘土는 기후가 뜨거우면 서늘하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7)

(2) 懷; 藏也, 품을 회

(3) 挾; 懷也, 품을 협

(4) 抱; 懷也, 품을 포

(5) 熏; 灼也, 지질 훈

(6) 棄; 捐也, 버릴 기

(7) 逃; 避也, 피할 도

(8) 自; 己也, 몸소 자

(9) 亡; 失也, 잃을 망

(10) 洋溢(양일); 가득 차서 흘러 넘침.

(11) 浸漬(침지); 물에 담가 적심.

(12) 擊; 打也, 칠 격

(13) 臍; 體四臍手足, 사지 지

(14) 陵; 侮也, 업신여길 릉

7) “土寒則溫 土熱則涼; 指冬天氣候寒冷, 陽氣收藏在下, 土壤心處反溫暖, 故曰土寒則溫. 夏天氣候炎熱, 陽氣發泄于上, 陰氣在下, 土壤深處反清涼, 故曰土熱則涼.”
上揭書, p.116.

(15) 見; 對面, 만날 견

(16) 居; 處也, 거처할 거

【國譯】

土는 기후가 차면 따뜻하고, 뜨거우면 서늘하며 겨울에는 陽氣가 지하에 있어서 땅속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陰氣가 지하에 있어 땅속이 서늘하니 脾氣도 역시 그렇다. 土에 子가 있으니 이를 金이라 한다. 土氣가 子인 金을 품어 안아서 그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金은 火를 두려워하여 熱이 와서 熏蒸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마침내 母를 버리고 水中으로 달아나면 水 자체는 金의 子이고 火神을 간직하고 있으니 金이 水로 도망을 오면 水는 門戶를 閉塞하기 때문에 內外가 통하지 않으니 이것을 겨울철이라 한다. 陽氣는 속에 있고 陽은 五行中 火에 屬하니 金의 성질은 火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熏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金이 水中으로 들어가서 火를 피하니 母子가 만나기 때문에 그 氣가 旺盛해진다. 閉塞不通이라는 것은 水氣가 充實한데 金氣마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니 강하면서 굳게 되고 火氣가 다시 가서 金을 克할 수 없게 되는 것은 水氣와 金氣의 神이 더욱 固密해진 무리이다. 土가 그 子인 金을 잃으면 그 氣가 衰弱해져서 水氣가 넘쳐흘러 땅이 젖어서 늪이 되니 어떤 板本에는 '爲池'를 '其地'라고 한 곳도 있다. 皮膚로 보내져서 얼굴과 눈이 붓고 四肢로 들어간다. 이것은 脾氣가 衰弱해진 것이다. 土는 水를 방어하나 이제 土氣는 弱하고 水氣는 强하기 때문에 水가 土를 壼신여겨서 涵부로 運行한다. 庸劣한 의사가 이러한 水腫을 만났을 때 곧 바로 下劑를 써서 脾胃가 空虛해지면 水氣는 마침내 머물러서, 肺에 喘息과 浮腫이 발생한다. 脾胃가 이미 病들었으면 마땅히 그 氣를 扶養해야 水道가 잘 통하게 되나 庸劣한 의사가 이를 깨닫지 못해 바로 下劑를 쓰면 이는 重傷이 되니 水氣는 이를 더욱 壼신여기고 위로는 胸中으로 侵犯하여 肺가 水를 얻어서 浮腫이 생기니 그러므로 喘浮라고 한다.

【原文】

肝反畏肺 故로 下沈沒(1)이라 肺金肝木은 此爲相刻이라 肺浮則實하야 必復刻肝 故로 畏之沈沒於下라 下有荊棘(2)하면 恐傷其身하야 避在一邊하니 以爲水流라 荊棘은 木之類라 肝爲木이니 今沒在下則爲荊棘이라 其身은 脾也니 脾爲土요 土畏木하니 是以로 避在下一邊은 避木也라 水流者는 水之流路也라 土本刻水나 而今微弱하고 又復觸木하야 無復制水 故로 水得流行이라 心衰則伏하고 肝微則沈이라 故로 令脈伏而沈이라 心火肝木이요 火則畏水而木畏金하니 金水相得하면 其氣則實하야 刻於肝心 故로 令二藏이 衰微하야 脈爲沈伏(3)也라 工醫(4)來占1)(5)하야 固(6)轉(7)孔穴2)(8)하야 利其漕便(9)하면 遂通水道하야 甘液下流하니 亭(10)其陰陽하야 喘息則微하고 汗出正流라 肝著(11)其根하고 心氣因起하야 陽行四肢면 肺氣亭亭(12)하야 喘息則安이라 轉孔穴者는 諸藏之榮井3)을 轉治其順4)이요 甘液은 脾之津液이요 亭其陰陽하면 得復其常所 故로 榮衛開通하야 水氣消除하고 肝得還著其根株라 肝心은 爲母子니 肝著則心氣得起하야 肺氣平調 故로 言亭亭이라 此는 爲端(13)好之類라

【校勘】

- 1) 工醫來占; 「千金」, 「卷十五上 脾臟脈論第一」엔 「工醫遠占」으로 되어 있다.
- 2) 固轉孔穴; 「校釋」엔 「因轉孔穴」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라 國譯한다.
- 3) 諸藏之榮井; 「黃本」, 「周本」엔 「諸藏之榮衛」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다.
- 4) 轉治其順; 「錢本」, 「周本」엔 「轉治使順」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沈沒(침몰); 물 속에 가라앉음.
- (2) 荊棘(형극); 가시
- (3) 伏(복); 伏脈, 伏은 처음 가볍게 눌렀을 때 나타나지 않고, 다음으로 中部에서 찾아도 나타나지 않으며, 다시 매우 무겁게 눌러도 그 形象이 없고, 손가락

으로 筋을 밖으로 밀어내고 診脈하여야 나타나는 脈狀이다.⁸⁾

(4) 工醫(공의); 高明한 의사를 가리킨다.⁹⁾

(5) 占; 視也, 볼 점

(6) 固; 本然詞, 진실로 고

(7) 轉; 變也, 바꿀 전

(8) 孔穴(공혈); 인체의 腧穴.

(9) 澁便(수변); 소변. * 澁; 溺謂之澁, 오줌 수

(10) 亭; 整也, 가지런할 정

(11) 著; 附也, 붙을 착

(12) 亭亭; 安靜된 모양이다. 여기서는 肺氣가 安定되고 調和된 모양을 의미한다.¹⁰⁾

(13) 端; 正也, 바를 단

【國譯】

肝은 도리어 肺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 肺金과 肝木은 相克관계이다. 肺가 浮腫하면 實하여 반드시 다시 肝을 克하기 때문에 肝은 이를 두려워하여 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아래로 가라앉은 荊棘이 있으면 脾는 그 몸이 損傷될 것을 두려워하여 한쪽으로 피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된다. 荊棘은 나무의 무리이다. 肝은 木이 되니 이제 아래로 가라앉으면 가시가 된다. 其身이라는 것은 脾니 脾는 土이고 土는 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래 한쪽으로 피한다는 것은 木을 피하는 것이다. 水流는 물이 흐르는 길이다. 土는 본래 水를 克하나 이제 微弱하고 또다시 木에 부딪어 다시 水를 제압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된다. 心이 衰弱하면 脈이 伏하고 肝이 微弱하면 脈이 沈하다. 그러므로 脈이 伏하면서 沈하게 된다. 心은 火에, 肝은 木에 속하고 火는 水를 두려워하고 木이 金을 두려워하니 金水가 서로 합해지면 그 氣는 實해져서 肝心을 克하기 때문에 肝心 二臟이 衰微해

져서 脈이 沈伏하게 된다. 고명한 의사가 보고서 病을 진찰하여 이어서 治療穴을 바꾸어 小便을 잘 나오게 하면 드디어 水道가 통하여 脾의 液인 甘液이 아래로 흐르니 陰陽이 균형을 이루어 喘息은 약해지고 땀이 나는 것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된다. 肝이 그 뿌리를 내리고 心氣가 일어나서 陽氣가 四肢로 運行되면 肺氣가 건실하게 되어 喘息이 가라앉는다. 轉孔穴은 모든 臟의 榮衛의 순행을 순서대로 바꾸어 치료하는 것이고 甘液은 脾의 津液이고 亭其陰陽은 음양이 정상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榮衛가 開通되고 水氣가 사라지고 肝이 다시 그 뿌리와 줄기를 내리게 된다. 肝心은 母子의 관계니 肝이 뿌리를 내리면 心氣가 다시 일어나 肺氣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亭亭’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무리인 것이다.

【原文】

腎爲安聲하고 其味爲鹹이니 肺主聲⁰⁾하고 腎爲其子로 助於肺 故로 言安聲이요 鹹은 腎味也라 倚坐¹⁾母敗면 洿²⁾臭如腥¹⁾이나 金爲水母而歸水中하니 此爲母往從子하여 脾氣反虛라 五藏은 猶²⁾此而相刺賊이면 倚倒³⁾致敗⁴⁾宅³⁾하여 洿臭而腥이라 故로 云然也라 土得其子則成爲山이니 金得其母를 名曰丘矣⁴⁾라

右는 四時經이라

【校勘】

- 1) 洿臭如腥; 『校釋』, 『校注』엔 ‘洿臭如腥’으로 되어 있다.
- 2) 五藏猶; 「錢本」, 「周本」엔 ‘五藏由’로 되어 있다.
- 3) 倚倒致敗宅; 「宛本」, 「周本」엔 ‘倚倒致敗則’으로 되어 있다. 國譯은 「周本」을 따른다.
- 4) 名曰丘矣; 『校釋』엔 ‘名曰邱英’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坐; 勞動之對, 일 않고 가만히 있을 좌
- (2) 洿; 穢也, 더러울 호
- (3) 倒; 仆也, 넘어질 도
- (4) 敗; 壞也, 무너질 패

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教 大學院, 益山, 1999, p.40.

9) “工醫; 指高明的醫生”.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17.

10) “亭亭; 安靜貌. …, 此言肺氣安定調和之狀”.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79

【國譯】

腎은 소리를 安定하게 하고 그 맛은 鹹味이니 肺는 소리를 주관하고 腎은 肺의 子息으로 肺를 돕기 때문에 소리를 安定되게 한다고 말한 것이고 짠맛은 腎의 맛이다. 母가 무너져 의지한 것이 무너져서 비린내와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나나 金은 水의 母로 水中으로 들어가니 이것은 母가 子를 좇아가서 脾氣가 오히려 虛해진 것이다. 五臟이 이와 같아서 서로 克하고 헤치면 의지하던 것이 넘어지고 무너져 비린내와 같은 더러운 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土가 그 子를 얻으면 이루어 土이 되니 金이 그 母인 脾를 얻는 것을 丘라고 한다.

이상은 四時經의 글이다.

第3章 脾脈의 正常脈과 太過 不及脈에 따른 病證

【原文】

黃帝曰 四時之序는 逆順1)之變異也나 然이나 脾脈은 獨何主오 岐伯이 曰脾者는 土也2)요 孤藏이니 以灌 四傍者也이니다

曰然則脾善惡(1)을 可得見乎잇가 曰善者는 不可得 見이요 惡者는 可見이니다

曰惡者는 何如3)오 曰其來如水之流者를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如鳥之喙(2)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라 太過則令人으로 四肢沈重不舉4)하고 其不及則令人으로 九竅壅塞不通5)하니 名曰重強(3)이니다

【校勘】

- 1) 逆順; 『素問·玉機眞藏論』엔 ‘逆從’으로 되어 있다.
- 2) 脾者土也; 『玉機眞藏論』엔 ‘脾脈者土也’로 되어 있다.
- 3) 惡者何如; 『玉機眞藏論』엔 ‘惡者何如可見’으로 되어 있다.
- 4) 四肢沈重不舉; 『玉機眞藏論』엔 ‘四肢不舉’로 되어

있다.

5) 九竅壅塞不通; 『玉機眞藏論』엔 ‘九竅不通’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脾善惡(비선악); 脾脈의 正常과 異常을 가리킨다.11)

(2) 喙; 鳥嘴, 부리 喙

(3) 重強(중강); 脾의 病症으로 四臟에 영양물질이 잘 공급되지 못하여 몸이 무겁고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며 九竅가 잘 通하지 못하는 등 臟器의 機能障礙 症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重; 疊也, 거듭 중

【國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四時의 次序에 따른 脈狀은 順하기도 하고 逆하기도 하는 變異가 있다. 그러나 脾脈은 홀로 어떤 것을 主宰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脾脈은 土에 속하고 孤藏이므로 四傍에 灌溉하는 것입니다.

물의를기를, 그러면 脾의 정상적인 脈과 病的인 脈을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正常脈은 그 形狀을 볼 수 없으나 病的인 脈은 그 形狀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를기를, 病的인 脈은 어떠한 형상입니까? 대답하기를, 그 脈氣 오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을 太過라 하니 病이 외부에 있는 것이고, 새의 부리와 같은 것을 不及이라 하니 病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脈이 太過하면 환자의 四肢가 무거워 들 수 없고, 그 脈이 不及하면 九竅가 막혀서 通하지 않으니 이를 重強이라 합니다.

【考察】

本章은 『素問·玉機眞藏論』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正常脈은 그 形狀을 볼 수 없으나 病的인 脈은 그 形狀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醫學入門』에

11) “脾善惡 指脾脈的正常與異常的意思”.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0.

“胃氣는 中氣이니 大하거나 細하지도, 長하거나 短하지도, 浮하거나 沈하지도, 滑하거나 瀯하지 않으며 손에 感應되는 것이 中間 정도로 부드럽고 생기 발랄하여 무슨 脈이라 이름짓기도 어렵고 어떤 形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른다.”¹²⁾고 한 것을 살펴볼 때 正常脈이 그 形狀을 볼 수 없다는 것은 絶脈이 아닌 胃氣가 있는 脈임을 알 수 있다.

重強에 대하여 『校釋』은 “五臟은 胃를 근본으로 하는데 脾가 약해지면 臟氣가 조화롭지 못하여 胃氣가 더욱 強해지기 때문에 重強이라고 한다.”¹³⁾고 하였고, 『校注』는 “『素問·玉機眞藏論』 王冰注에 ‘重은 臟氣가 重疊된 것이고 強은 氣가 和順하지 못한 것을 이른다.’고 하였고 楊上善 『太素』注에 ‘氣가 몸에서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몸이 무거우면서 뻣뻣해 진다.’고 하여 王은 病機로 楊은 症狀으로 말한 것이니 두 가지 說을 서로 보충하여 보아야 한다.”¹⁴⁾고 하였는데 『校注』의 설명이 더 구체적이다.

第4章 脾의 平脈, 病脈, 死脈

【原文】

脾脈來1)에 而和柔相離(1)하야 如雞足踐地2)(2)를 曰平3)이요 長夏엔 以胃氣爲本이라 脾脈來4)에 實而盈數하야 如雞舉足(3)을 曰脾病이요 脾脈來5)에 堅兌6)(4)하야 如鳥之喙커나 如鳥之距(5)와 如屋之漏(6)커나 如水之溜7)(7)를 曰脾死라

眞脾脈至가 弱而乍(8)疎(9)乍散(8)하고 一作數이라 色靑黃不澤하고 毛折이면 乃死라

長夏에 胃微濡弱을 曰平이요 弱多胃少를 曰脾病이

요 但代(10)無胃(9)를 曰死요 濡弱(11)有石을 曰冬病이요 石甚(10)을 曰今病이라

【校勘】

1) 脾脈來而; 『素問·平人氣象論』엔 ‘平脾脈來’로 되어 있다.

2) 而和柔相離 如雞足踐地; 『平人氣象論』과 『類經』엔 ‘和柔相離 如雞踐地’로 되어 있다.

3) 曰平; 『平人氣象論』엔 ‘曰脾平’으로 되어 있다.

4) 脾脈來; 『平人氣象論』엔 ‘病脾脈來’로 되어 있다.

5) 脾脈來; 『平人氣象論』엔 ‘死脾脈來’로 되어 있다.

6) 堅兌; 『平人氣象論』엔 ‘銳堅’으로 되어 있다.

7) 如水之溜; 『校釋』엔 ‘如水之溜’로 되어 있고, 『平人氣象論』엔 ‘如水之流’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다.

8) 弱而乍疎乍散; 『素問·玉機眞藏論』엔 ‘弱而乍數乍疏’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다.

9) 但代無胃; 『周本』엔 ‘但弱無胃’로 되어 있다.

10) 石甚; 『平人氣象論』엔 ‘弱甚’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相離(상리); 고르고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¹⁵⁾

(2) 如雞足踐地(여계족천지); 張景岳은 “모양이 輕緩한 것을 좇는 것이다. 이것은 즉 沖和의 氣다. 역시 微稟弱하다는 뜻으로 이는 脾의 平脈이다.”¹⁶⁾고 하였다. * 雞; 司晨鳥, 닭 계 * 踐; 藉也, 밟을 천

(3) 如雞舉足(여계거족); 汪機는 “땅을 밟는다는 것은 닭이 놀라지 않아서 천천히 가는 것이고, 다리를 든다는 것은 놀랐을 때 빠르게 가는 것이다. 脈이 實數한 것과 輕緩한 것이 서로 相反되는 것을 비교하여 彼此를 대조하여 보면 더욱 明白하다”¹⁷⁾고 하였고, 『

12) “胃氣者 中氣也. 不大不細 不長不短 不浮不沈 不滑不瀯 應手中和 意思欣欣 難以名狀者 是也.”

李樞 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90, p.439

13) “重強: 五臟以胃爲本 脾弱則臟氣不和 胃氣益損 故曰重強”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0

14) “重強: 『素問·玉機眞藏論』王冰注 ‘重謂臟氣重疊. 強謂氣不和順’ 楊上善 『太素』注 ‘不行氣於身 故身重而強也’ 王從病機言 楊從症狀言 二說互補.”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79

15) “相離: 勻淨分明也.”

張景岳: 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92, p.115

16) “如雞踐地: 從容輕緩也, 此卽沖和之氣, 亦微稟弱之義, 是爲脾之平脈.”

張景岳: 類經, 大成文化社, 서울, 1992, p.115

17) “如雞舉足: 踐地, 是鷄不驚而徐行也. 舉足, 被驚時疾行也. 況實

校釋은 “脈象이 疾하면서 緩하지 않을 것을 형용한 것이다.”¹⁸⁾고 하였다.

(4) 兌; 銳通, 날카로울 때

(5) 如鳥之距(여조지거); 새의 발톱처럼 堅強하고 예리한 것을 말한다.¹⁹⁾ * 距; 머느리발톱 거

(6) 如屋之瀾(여옥지루); 脈象이 屋漏水 같아 날날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순서가 없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²⁰⁾

(7) 如水之流(여수지류); 물이 평평하게 흘러 굴곡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²¹⁾

(8) 乍; 暫也, 잠깐 사

(9) 疎; 稀也, 드물 소

(10) 代(대); 代는 차례로 交代한다는 뜻이니 長夏에 나타나는 微稟弱한 脈狀이다.

(11) 弱(약); 弱脈,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狀이다.²²⁾

【國譯】

脾의 脈氣가 올 때 和緩하고 柔軟하고 울동이 고르고 분명하여 마치 닭이 가볍게 걸어가듯 같은 것을 脾의 平脈이라 하고 長夏에는 胃氣로 根本을 삼기 때문에 脾의 脈氣가 올 때 가득 차고 數하여 마치 닭이 뛰는 것 같은 것을 脾病이라 하고 脾의 脈氣가 올 때 굳고 예리하여 마치 까마귀의 부리나 새의 발톱 같고 혹 屋漏와 같이 脈의 울동이 고르지 않거나 물이 평평하게 흘러 굴곡이 없는 것 같은 것을 脾의 死脈이라 한다.

脾의 眞藏脈이 이르는 것이 弱하면서 때로 천천히

뛰다 때로 빨리 뛰기도 하고 어떤 板本에는 數이라고 한 곳도 있다. 얼굴이 靑黃色이며 潤澤하지 않고 毛髮이 부러지면 죽는다.

長夏의 脈狀에 胃氣가 있어서 微濡弱한 것을 平脈이라 하고 弱脈이 많고 胃氣가 적은 것을 脾病脈이라 하고 단지 그 時期脈인 濡弱한 脈만 나타나고 胃氣가 없는 것을 死脈이라 하고 濡弱脈에 石脈을 겸하면 겨울에 이르러 病이 발생하고 石甚하면 방금 발생한 病이다.

【考察】

‘脾脈來 而和柔相雜 …… 曰脾死’와 ‘長夏 胃微濡弱 …… 石甚曰今病’은 『素問·平人氣象論』에서, ‘眞脾脈至 …… 毛折乃死’는 『素問·玉機眞藏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但代無胃에 대하여 王冰은 “代脈은 脈이 搏動하다가 중지하여 스스로 돌아 올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景岳은 “代는 更代의 뜻이다. 脾는 四季를 主宰하니 脈도 마땅히 때를 따라 更代하여야 하나 반드시 모두 和軟한 脈狀을 겸하여야 脾의 平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일 四季에 脈이 모두 更代되 단지 弦脈이나 鈎脈, 毛脈, 石脈만 나타나면 이는 脈만 更代하고 胃氣가 없는 眞藏脈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死脈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高世栻은 “代는 軟弱한 脈狀이 極에 달한 脈이다. 軟弱한 脈狀이 極에 달하고 胃氣가 없으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²³⁾ 원문에 ‘長夏의 脈狀에 胃氣가 있어서 微濡弱한 것을 平脈이다’고 한 것을 살펴볼 때 ‘但代無胃’의 해석을 ‘長夏의 시기에 更代하는 脈으로 微濡弱한 脈狀만 나타나고 胃氣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서 死脈으로 본 景岳과 高世栻의 주장은 옳은 반면에 정상적인 脈狀인 代脈으로 본 王冰의 견해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數與輕緩相反, 彼此對看, 尤是明白”.

汪石山; 汪石山醫學全書 中 讀素問抄,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136

18) “如鷄舉足 形容脈象疾而不緩”.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0.

19) “如鳥之距 如鳥距的堅銳”. 上揭書, p.120.

20) “如屋之瀾; 形容脈象如屋漏水, 點滴無倫次”. 上揭書, p.121.

21) “水流 謂平至不鼓”

汪石山; 汪石山醫學全書 中 讀素問抄,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136

22)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敎 大學院, 益山, 1999, p.65.

23) 都金錄;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平人氣象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pp.194-195

第5章 脾의 五邪脈

【原文】

脾藏榮(1)하고 榮舍意하니 愁憂不解則傷意하고 意傷則悶(2)亂(1)하고 四肢不舉하고 毛悴色夭하니 死于春이라

六月季夏의 建(3)은 未요 坤未之間이 土之位(4)니 脾王之時라 其脈이 大하고 阿阿(5)而緩을 名曰平脈이 요 反得絃細而長者는 是肝之乘脾요 木之刻土니 爲賊邪요 大逆이니 十死不治라 反得浮濇而短者는 千金엔 浮를 作微라 是肺之乘脾요 子之扶母요 爲實邪니 雖病이나 自愈라 反得洪大而散者는 千金에 作浮大而洪이라 是心之乘脾요 母之歸子요 爲虛邪니 雖病이나 易治라 反得沈濡而滑者는 腎之乘脾(2)요 水之陵土요 爲微邪니 雖病이나 卽差라

脾脈이 萋萋(6)而弱하고 千金엔 萋萋을 作長長이라 來(7)疎去(8)數하고 再至를 曰平이요 三至를 曰離經이니 病이요 四至를 脫精이요 五至를 死요 六至를 命盡이라 足太陰脈也라

【校勘】

1) 悶亂: 『靈樞·本神』엔 ‘惋亂’으로 되어 있다.

2) 腎之乘脾: 「黃本」, 「朱本」, 「張本」엔 ‘腎之乘肺’로 되어 있다. 肺는 脾의 誤字이다.

【註釋】

(1) 榮(영); 水穀의 精氣.

(2) 悶; 心煩鬱, 속 답답할 민

(3) 建(건); 月建 달의 干支를 말한다.

(4) 坤未之間土之位(곤미지간토지위); 坤은 卦의 이름이고 위치는 西南이며, 未는 方位의 이름이고 위치는 역시 西南이다. 土는 中央에 위치하여 土의 勢力이 가장 강한 坤位에 붙어 있기 때문에 坤未의 사이는 土의 위치이라고 말한다.²⁴⁾

24) “坤未之間土之位; 坤卦名, 位在西南. 未辰名, 位亦在西南. 土居中央, 寄于坤位, 故曰坤未之間土之位”.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3.

(5) 阿阿; 나무 가지가 죽죽 늘어진 모양. * 阿; 枝條阿阿然長美, 가지 죽죽 뻗은 모양 아

(6) 萋萋; 긴 모양이다.²⁵⁾ * 萋; 今羊桃, 장초나무 장

(7) 來(래); 脈氣가 骨肉에서 皮膚로 나오는 것으로 氣가 上昇하는 것이고 表가 된다.²⁶⁾

(8) 去(거); 脈氣가 皮膚에서 骨肉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氣가 下降하는 것이고 裏가 된다.²⁷⁾

【國譯】

脾는 榮을 간직하고 榮에는 意가 깃드니 근심과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意가 傷하고 意가 傷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四肢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니 毛髮과 顏色이 까칠하고 윤택하지 않으면 봄에 죽는다.

음력 六月 季夏의 月建은 未이고 坤未의 사이가 土의 위치이니 脾가 왕성한 시기이다. 그 脈이 大하면서 부드럽고 緩한 것을 脾의 平脈이라 하고, 도리어 脈狀이 弦細하면서 長한 것은 肝이 脾를 乘한 것이고 木이 土를 克한 것이니 賊邪가 되고 크게 거스른 것이니 치료할 수 없어 모두 죽게 된다. 도리어 脈狀이 浮濇하면서 短한 것은 『千金』에는 ‘浮’를 ‘微’라고 하였다. 肺가 脾를 乘한 것이고 子가 母를 부축한 것이고 實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저절로 낫는다. 도리어 脈狀이 洪大하면서 散한 것은 『千金』에는 “浮大하면서 洪하다.”고 되어 있다. 心이 脾를 乘한 것이고 母가 子에게 돌아간 것이고 虛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쉽게 치료된다. 도리어 脈狀이 沈濡하면서 滑한 것은 腎이 脾를 乘한 것이고 水가 土를 克한 것이고 微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곧 낫는다.

脾脈이 길면서 弱하고 『千金』에 ‘萋萋’이 ‘長長’으로 되어 있다. 脈氣가 來할 때는 성글고 脈氣가 去할 때는 數하고 一呼에 두 번 搏動하는 것을 平脈이라 하고,

25) “萋萋 長貌”.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1.

2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敎 大學院, 益山, 1999, p.4

27) 上揭書, p.4

세 번 搏動하는 것을 離經脈이라 하니 病이 발생한 것이고, 네 번이면 脫精, 다섯 번이면 死脈, 여섯 번이면 命盡이라 한다. 이것은 足太陰의 脈狀들이다.

【考察】

‘脾藏榮 榮舍意’와 ‘愁憂不解則傷意 意傷則悶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于春’은 『靈樞·本神』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第6章 脾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原文】

脾脈이 急甚하면 爲瘦癯이요 微急하면 爲脾中滿(1)하고 食飲入而還出하고 後沃沫(1)이라 緩甚하면 爲痿厥(2)이요 微緩하면 爲風痿(3)로 四肢不用이나 心慧然若無病(4)이라 大甚하면 爲擊仆(5)요 微大하면 爲痞氣(2)(6)하고 裏大(3)膿血이 在腸胃之外라 小甚하면 爲寒熱이요 微小하면 爲消瘴이라 滑甚하면 爲頰癰(4)(7)이요 微滑하면 爲蟲毒虻腸鳴熱(5)이라 濡甚하면 爲腸積(8)요 微濡하면 爲內潰(9)로 多下膿血이라

足太陰氣絕則脈不營其口脣(6)이라 口脣(7)者는 肌肉之本也니 脈不營則肌肉濡(8)하고 肌肉濡(8)則人中滿(9)하고 人中滿則脣反(10)하니 脣反者는 肉先死라 甲篤乙死하니 木勝土也라

脾死藏은 浮之에 脈大緩하고 一作堅이라 按之에 中如覆杯하고 繫繫(11)狀하고 如搖者는 死라 一云 繫繫(12)狀如炙肉이라하니라

右는 素問針經張仲景이라

【校勘】

1) 爲脾中滿; 『周本』, 『校注』엔 ‘爲膈中滿’으로 되어 있고, 『靈樞·邪氣臟腑病形』엔 ‘爲膈中’으로 되어 있다. 문장의 의미상 ‘脾’는 ‘膈’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역에 『周本』을 따른다.

2) 痞氣; 『邪氣臟腑病形』엔 ‘疝氣’로 되어 있는데, 大는 心臟의 脈狀이다. 微大하면 火生土가 안 되는 것

이므로 痞氣가 발생하기 때문에 原文을 그래도 따라 痞氣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3) 裏大; 『邪氣臟腑病形』엔 ‘腹裏大’로 되어 있다.

4) 頰癰; 『邪氣臟腑病形』엔 ‘癰癰’으로 되어 있다.

5) 有蟲毒虻腸鳴熱; 『邪氣臟腑病形』엔 ‘有蟲毒虻腸腹熱’로 되어 있다.

6) 其口脣; 『靈樞·經脈』엔 ‘肌肉’으로 되어 있다.

7) 口脣; 『經脈』엔 ‘脣舌’로 되어 있다.

8) 肌肉濡; 『經脈』엔 ‘肌肉軟’으로 되어 있다. 아래 句도 마찬가지로.

9) 則人中滿; 『經脈』엔 ‘則舌萎人中滿’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後沃沫(후옥말); 거품 섞인 大便을 泄瀉하는 것이다. 後는 大便을 가르킨다.²⁸⁾ * 沃; 從上溜下, 낙수물 옥 * 沫; 浮沫, 물거품 옥

(2) 痿厥(위궐); 痿症과 厥症이 합쳐진 병증이다.

(3) 風痿(풍위); 風으로 생긴 痿症. 胃腸障礙 증상과 함께 팔다리 근육이 萎縮 되고 힘이 없어 쓰지 못하는 병증이다.

(4) 慧; 智也, 밝을 헤

(5) 擊仆(격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病症으로 卒中風과 같은 의미이다.

(6) 痞氣(비기); 脾積과 같은 뜻으로, 얼굴빛이 누르고 胃脘부위에 잔을 얹어놓은 것 같은 것이 있어 딱혀 通하지 못하는데 배가 고프 때에는 줄어들고 배가 부를 때에는 그득하고 嘔逆이 나며 泄瀉를 하고 점차 살이 빠지며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면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병증이다.

(7) 頰癰(퇴릉); 鞞丸이나 陰囊이 커지면서 아프거나 아랫배가 켕기며 아픈 병증이다.

(8) 腸積(장퇴); 癰疽의 하나로 寒濕으로 한쪽 陰囊이 부어서 커지고 가려운 병증이며, 小腸氣라고도 한다. 또, 『太素』 楊上善注에는 “脈이 澁하고 氣가 적고

28) “後沃沫; 大便下泄泡沫. 後指大便”.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2

血이 많으면서 차기 때문에 冷氣가 아래로 내려와 廣腸이 脫出하는 것을 腸癰라 한다.”고 하였다.²⁹⁾

(9) 內潰(내궤); 內癰이 潰破된 것이다. * 潰; 무너질 궤

(10) 脣反(순반); 입술이 뒤집어 지는 것이다. * 反; 覆也, 엮칠 반

(11) 絜絜(혈혈); 단단하게 얽혀서 부드럽지 않은 모양.³⁰⁾ * 絜; 猶結, 맺 혈

(12) 絜絜(칩칩); 끈적 끈적한 모양. * 絜; 汗出貌, 땀흘리는 모양 칩

【國譯】

脾脈이 急甚하면 癩瘰이 발생하고, 微急하면 膈中이 脹滿하고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거품 섞인 泄瀉를 한다. 緩甚하면 痿厥이 발생하고, 微緩하면 風痿로 四肢를 쓰지 못하나 精神은 맑아서 病이 없는 것 같다. 大甚하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微大하면 痞氣가 발생하거나 큰 膿血 집이 腸胃의 밖에 있다. 小甚하면 惡寒과 發熱이 발생하고, 微小하면 消痺이 발생한다. 消甚하면 頰癰이 발생하고 微消하면 蟲毒이나 蚘蟲이 있고 腹中에 熱이 있어 腸鳴이 발생한다. 澹甚하면 腸頰가 발생하고 微澹하면 內癰이 潰破된 것으로 대부분 膿血을 대변으로 배출한다.

足太陰의 氣가 끊어지면 血脈이 입술을 기르지 못한다. 입술은 肌肉의 根本이니 血脈이 肌肉을 기르지 않으면 肌肉이 軟弱해지고, 肌肉이 軟弱해지면 人中이 부어 차오르고 人中이 부어 차오르면 입술이 뒤집히니 입술이 뒤집힌 것은 肉氣가 먼저 끊어진 것이다. 甲일에 危篤하고 乙일에 죽게 되니 木이 土를 勝한 것이다.

脾臟의 死脈은 浮取하면 脈이 大緩하고 어떤 板本에는 “緩이 ‘堅’이라고도 되어 있다. 沈取하였을 때 그 가운데가 잔을 얹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단단하게 얽

혀서 부드럽지 않은데 만약 이것이 動搖하면 죽는다. 어떤 板本에는 “구어 놓은 고기와 같이 絜絜하다고 하였다.”고 한 곳도 있다.

이상은 『素問』, 『針經』, 張仲景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考察】

‘脾脈急甚爲癩瘰 …… 多下膿血’은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足太陰氣絕則脈不營 …… 木勝土也’는 『靈樞·經脈』에서, ‘脾死藏 …… 如搖者死’는 『金匱要略』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第十一」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第4篇 肺大腸部第四

第1章 肺大腸의 生理와 自然界와의 關係

【原文】

肺象金하고 與大腸으로 合爲府라 大腸은 爲傳導之府(1)也라 其經은 手太陰이요 手太陰은 肺脈也라 與手陽明으로 爲表裏라 手陽明은 大腸脈也라 其脈은 浮요 浮는 肺脈之大形也라 其相은 季夏六月이요 季夏는 土王하야 金相이라 其王은 秋三月이요 廢는 冬三月이요 囚는 春三月이요 死는 夏三月이라 夏엔 火王하야 金死라 其王日은 庚辛이요 王時는 晡時日入이라 其困日은 甲乙이요 困時는 平旦日出이라 其死日은 丙丁이요 死時는 禺中日中이라

其神은 魄(2)이요 其主는 聲이요 其養은 皮毛요 其候는 鼻요 其聲은 哭이요 其色은 白이요 其臭는 腥(3)이요 其液은 涕(4)요 其味는 辛이요 其宜는 鹹이요 其惡는 苦라

肺俞는 在背第三椎요 或이 云 第五椎也라하니라 募는 在中府라 直兩乳上下肋間(1)이라 大腸俞는 在背第十六椎요 募는 在天樞라 俠臍傍各一寸半이라

右는 新撰이라

29) “腸癰 『太素』楊上善注: ‘脈虛, 氣少血多而寒, 故冷氣沖下, 廣腸脫出, 名曰腸癰’.”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4.

30) “絜絜: 堅結不和貌”.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3.

【校勘】

1) 直兩乳上下肋間; 『周本』엔 ‘直兩乳上二肋間’으로 되어 있다. 中府는 第2肋間에 있기 때문에 『周本』을 따르는 것이 옳다.

【註釋】

(1) 傳導之府(전도지부); 大腸을 지칭한다. 消化된 음식물찌꺼기를 운반하고 대변을 만들어 내보내는 장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2) 魄(백); 精과 나란히 出入하는 것을 魄이라 한다.³¹⁾ 魄, 본능적인 감각기능과 몸 동작을 하는 기능을 표현한 말이다.

(3) 腥; 臭也, 비릴 성

(4) 涕; 目汁出曰涕, 눈물 체

【國譯】

肺는 金을 본받고 大腸은 肺와 相合하며 그 腑가 된다. 大腸은 傳導의 腑이다. 그 經脈은 手太陰이고 手太陰은 肺의 經脈이다. 手陽明과 表裏가 된다. 手陽明은 大腸의 經脈이다. 그 脈狀은 浮이고, 浮는 肺脈의 대표적인 형상이다. 그것의 相은 季夏 六月이고, 季夏에는 土氣가 旺盛하므로 金의 相이 된다. 그것의 王은 秋三月이고, 廢는 冬三月이고, 囚는 春三月이고, 死는 夏三月이다. 여름에는 火氣가 旺盛하므로 金의 死가 된다. 그것의 王日은 庚辛日이고 王時는 申時에서 酉時까지이다. 그것의 囚日은 甲乙日이고 囚時는 寅時에서 卯時까지이다. 그것의 死日은 丙丁日이고 死時는 巳時에서 午時까지이다.

그것의 神은 魄이고, 그것이 主宰하는 것은 聲이고, 길러주는 것은 皮毛이고, 徵候는 코에 나타나고, 소리에 있어서는 울음, 색에 있어서는 흰색, 냄새에 있어서는 비린내, 體液은 涕, 맛은 辛味, 좋아하는 맛은 鹹味, 싫어하는 맛은 苦味이다.

肺俞는 등 第三椎 아래에 있고 어떤 판본에는 第五

椎라고 한곳도 있다. 募穴은 中府이다. 양쪽 젖꼭지 直上 二肋間이다. 大腸俞는 등 第十六椎 아래에 있고 募穴은 天樞이다. 배꼽을 낀 옆의 각 一寸半에 있다.

이상은 새롭게 撰集한 것이다.

第2章

第1節 肺의 毛脈形成 機轉

【原文】

肺者는 西方金이요 萬物之所終이라 金性은 剛故로 王西方하야 割(1)斷萬物하니 萬物은 是以로 皆終於秋也라 宿葉이 落柯(2)하야 萋萋枝條(3)하야 其杌然(4)獨在라 其脈은 爲微浮毛1)(5)니 衛氣遲나 萋萋者는 零落(6)之貌也니 言草木宿葉이 得秋隨風而落하고 但有枝條杌然獨在라 此時에 陽氣則遲하고 脈爲虛微하야 如毛也라 榮氣數이라 數則在上하고 遲則在下 故로 名曰毛라 諸陽은 脈數하고 諸陰은 脈遲하며 榮은 爲陰이니 不應數이로대 反言榮氣數은 陰得秋節而昇轉하야 在陽位 故로 一時數而在上也라 比時(2)에 陰始用事하야 陽卽下藏하야 其氣反遲라 是以로 肺脈이 數散如毛也라

【校勘】

1) 其脈爲微浮毛; 『千金』 「卷十七 肺藏脈論 第一」엔 ‘其脈爲微浮’로 되어 있다.

2) 比時; 『周本』엔 ‘此時’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比는 此字의 誤字이다.

【註釋】

(1) 割; 截也, 벨 할

(2) 柯; 枝也, 가지 가

(3) 萋萋枝條(처처지조); 가지만 앙상한 모양이다. * 萋; 臣盡力, 힘을 다할 처

(4) 杌然; 앙상한 모양이다. * 杌; 木無枝, 가지 없는 나무 올

(5) 毛(모); 毛脈. 『脈語』는 “毛脈은 脈氣 오는 것이

31)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黃帝內經靈樞(王冰注); 中華書局聚珍版宋版印, 臺北, 1972, p.51.

浮濇하여 깃털이나 터럭과 유사하며 金에 屬하니, 病症은 濇脈과 같다.”³²⁾고 하였다.

(6) 零落; 퇴색하여 떨어지는 것. * 零; 落也, 떨어질 영

【國譯】

肺는 西方金에 屬하고 萬物이 성장을 마치는 것이다. 金의 성질은 剛하기 때문에 西方에서 왕성하여 萬物을 절단하니 萬物은 이런 까닭으로 모두 가을에 죽는다. 木은 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홀로 남는다. 그 脈은 微浮毛하니 衛氣는 遲하나 萎萎는 떨어지는 모양이니 草木의 木은 잎이 가을이 되면 바람을 따라 떨어지고 단지 나무 가지만 홀로 남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때에는 陽氣는 느리고 脈이 虛微하여 터럭과 같다. 榮氣는 數하다. 數한 것은 곧 위에 있고 遲한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를 毛라 한다. 모든 陽은 脈이 數하고 모든 陰은 脈이 遲하며 榮氣는 陰이니 數에 應하지 않으나 도리어 榮氣가 數하다고 말한 것은 陰氣가 가을이 되어 위로 올라가 陽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때에 數하면서 위에 있게 된다. 이 때는 비로소 陰이 작용하여 陽은 아래에 貯藏되므로 그 氣가 도리어 遲하다. 이리므로 肺脈이 터럭처럼 數散하다.

【考察】

‘數則在上 遲則在下’에서 遲數은 無力·有力을 나타내고 上下는 表部와 裏部를 뜻하는 것으로 의역을 하면 ‘表部는 힘이 있고 裏部는 힘이 없다.’로 되며 이것은 결국 浮脈을 표현한 것이다.

第2節 瘧疾의 發生機轉과 症狀

【原文】

陽當陷(1)而不陷하고 陰當昇而不昇하면 爲邪所中이

라 陰陽交易則不以時定하고 二氣感激(2) 故로 爲風寒所中이라 陽中(3)邪則捲(4)하고 陰中邪則緊(5)하니 捲則惡寒하고 緊則爲慄(6)하야 寒慄이 相薄(7) 故로 名曰瘧이라 弱則發熱이라가 浮乃來出이라 捲者는 其人이 拘捲也요 緊者는 脈緊也라 此는 謂初中風寒之時에 脈緊하면 其人則寒하고 寒止而脈更微弱하니 弱則其人發熱이요 熱止則脈浮하니 浮者는 瘧解하고 王脈出也라 且中且發하고 暮中暮發이라 言瘧發은 皆隨其初中風邪之時也라

【註釋】

- (1) 陷; 沒也, 가라앉을 함
- (2) 激; 부딪힐 격
- (3) 中; 矢至의, 맞힐 중
- (4) 捲; 收也, 오그라들 권
- (5) 緊; 緊脈이다.
- (6) 慄; 戰慄, 무서워 떨 을
- (7) 薄; 迫也, 부딪칠 박

【國譯】

가을에 陽氣는 아래로 내려가야 하나 내려가지 않고 陰氣는 上昇해야하나 上昇하지 않으면 邪氣가 침범한 것이다. 陰陽이 뒤바뀌는 것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陰陽의 氣運이 서로 부딪치기 때문에 風寒이 침입하게 된다. 陽에 邪氣가 침입하면 몸이 오그라들고 陰에 邪氣가 침입하면 脈이 緊하게 되니 몸이 오그라들면 惡寒하고 脈이 緊하면 떨어져서 惡寒과 戰慄이 뒤섞이기 때문에 이를 瘧疾이라 한다. 脈이 弱하면 열이 나다가 脈이 浮해지면 瘧疾의 邪가 나간다. 捲은 그 사람이 몸이 오그라드는 것이고 緊은 脈이 緊한 것이다. 이는 처음 風寒의 邪氣가 침입한 때에 脈이 緊하면 그 사람이 惡寒하고 惡寒이 그치면 脈이 다시 微弱하게 되니 脈이 弱하면 그 사람은 열이 나고 熱이 그치면 脈이 浮하게 되니 浮한 것은 瘧疾이 풀리고 王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침에 風寒邪가 침입하면 아침에 發作하고 저녁에 風寒邪가 침입하면 저녁에 發作한다. 瘧疾의 發作은 모두 처음 風邪에 침

32) “毛 脈來浮濇 類羽毛也 爲病 如濇脈同”.
 朴 炅;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34.

범 당한 때를 따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第3節 肺의 病理機轉

【原文】

藏有遠近하야 脈有遲疾하고 周有度數하야 行有漏刻이라 藏은 謂人五藏이니 肝心脾肺腎也요 心肺는 在膈上하야 呼則其氣出하니 是爲近이요 呼爲陽이니 其脈疾이라 肝腎은 在膈下하야 吸則其氣入하니 是爲遠也요 吸爲陰이니 其脈遲라 度數는 謂經脈之長短이요 周身行者는 榮衛之行也니 行陰陽各二十五度하야 爲一周也니 以應漏下百刻(1)也라 遲在上하면 傷毛采(2)요 數在下면 傷下焦라 中焦有惡則見하고 有善則匿(3)이라 秋則陽氣遲하고 陰氣數하니 遲當在下하고 數當在上이라야 隨節變이라 故로 言傷毛采也라 人之皮毛는 肺氣所行이요 下焦는 在臍下하야 陰之所治也니 其脈이 應遲나 今反數이라 故로 言傷下焦라 中焦는 脾也니 其不善之時에 脈常自不見하고 衰乃見耳라 故로 云 有惡則見也라 陽氣下陷하면 陰氣則溫(1)이나 言陽氣下陷하야 溫養諸藏이라 陽反在下하고 陰反再巔이라 故로 名曰長而且留라 陰陽交代하야 各順時節이라야 人血脈和平이니 言可長留竟(4) 時라

右는 四詩經이라

【校勘】

1) 陰氣則溫: 「黃本」에 '陰氣自溫'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刻: 漏箭, 시각 각
- (2) 采: 彩同字, 채색 채
- (3) 匿: 隱也, 숨길 익
- (4) 竟: 終也, 마칠 경

【國譯】

五臟에 遠近이 있기 때문에 脈에 遲疾이 있고 經脈의 길이에는 長短의 차이가 있어 氣가 運行하는 시간

이 각각 다르다. 臟은 사람의 五臟이니 肝心脾肺腎이고 心肺는 膈膜의 위에 있어 숨을 내쉬면 그 氣가 나오니 이것이 近이고 내쉬는 숨은 陽이니 그 脈이 疾하다. 肝腎은 膈膜의 아래에 있어 숨을 들여 마시면 그 氣가 들어오니 이것이 遠이고 들여 마시는 숨은 陰이니 그 脈이 遲하다. 度數는 經脈의 長短을 말하는 것이고 전신을 運行하는 것은 榮衛가 運行하는 것이니 陰과 陽이 各各 二十五度씩 運行하여 온 몸을 한 바퀴 도니 이로써 물시계 百刻에 相應하는 것이다. 脈이 遲한 것이 위에 있으면 毛髮의 色彩가 傷하고 脈이 數한 것이 아래에 있으면 下焦가 傷한다. 中焦에 病이 있으면 脾脈이 나타나고 病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가을에는 陽氣가 遲하고 陰氣가 數하니 遲한 것이 아래에 있어야 하고 數한 것이 위에 있어야 筋氣 變化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毛髮의 色彩가 상한다고 말 한 것이다. 사람의 皮毛는 肺氣가 運行하는 곳이고 下焦는 臍下에 있어 陰이 다스리는 곳이니 그 脈이 宜當 遲하여야 하나 이제 도리어 數하다. 그러므로 下焦가 傷한다고 말한 것이다. 中焦는 脾이니 평소 病이 없는 때에는 脈이 항상 스스로 나타나지 않고, 衰弱하면 나타난다. 그러므로 病이 있으면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 陽氣가 아래로 내려가면 陰氣는 따뜻해지나 陽氣가 아래로 내려가서 모든 臟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을 말한 것이다. 陽이 도리어 아래에 있고 陰이 도리어 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長하면서 또한 溜하다고 하는 것이다. 陰陽이 交代하여 각각 時間과 季節에 順應하여야 사람의 血脈이 和平하니 마침내 한 평생을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상은 四時經의 글이다.

第3章 가을철 脈의 太過 不及에 따른 病證

【原文】

黃帝問曰 秋脈如浮는 何如而浮오 岐伯이 對曰 秋脈은 肺也요 西方金也니 萬物之所以收成也라 故로 其氣來輕虛以浮하고 其氣(1)來急去散 故로 曰浮라하니 反此

者는 病이니다

黃帝曰 何如而反고 岐伯이 曰 其氣來毛而中央堅하고 兩傍虛를 此謂太過니 病在外오 其氣來毛而微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다

黃帝曰 秋脈太過與不及의 其病은 何如오 岐伯이 曰 太過則令人으로 氣逆而背痛溫溫然(1)하고 (內經에 溫溫을 作慄慄(2)이라) 不及則令人으로 喘하고 呼吸少氣而欬하고 上氣見血하고 下聞病音(3)이니다

【校勘】

1) 其氣來急去散: 『素問·玉機眞藏論』엔 ‘來急去散’으로 되어 있다.

2) 溫溫然: 『玉機眞藏論』엔 ‘慄慄然’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 ‘慄慄然’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註釋】

(1) 溫溫然(온온연); 온화한 모양.

(2) 慄慄: 답답하여 시원하지 못한 모양. * 慄: 怒也, 성낼 온

(3) 下聞病音(하문병음); 程 등은 “下聞病音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첫째는 『太素·卷十四·四時脈形』 注에 ‘아래로 胸中에서 喘息이 발생할 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고 한 것과 같이 목구멍 아래 가슴속에서 喘息時 담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가르킨다. 둘째는 『讀素問鈔』 滑壽 注에 ‘上氣見血 下聞病音은 喘息이 발생하면서 咯血하고 다음에 다시 咳嗽을 하는 것을 이른다. ‘下’는 ‘次’, ‘復’字와 같은 의미이다’고 한 것과 같이 咳嗽의 소리를 가르킨다. 셋째는 『素問經注節解·卷二』 注에 ‘病音은 …… 대개 氣가 아래로 내려 보내지면서 방귀를 많이 끼기 때문에 아래서 들린다고 말한 것이다.’고 한 것과 같이 방귀를 가르킨다. 넷째는 『素問直解·卷二』 注에 ‘기침을 하여 肺의 絡脈이 傷하면 上氣가 되며 唾血이 보인다. 氣가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면 아래에서 病音이 들린다. 病音은 呻吟 소리이다. 呻吟은 아래가 虛한 것이다.’고 한 것과 같이 呻吟 소리를 가르키고 腎이 아래에 머무르기 때문에 呻을 주관한다. 여러 注중 『

太素』, 『經注節解』의 注가 비교적 실제와 합당하다.”³³⁾ 고 하였고, 또, 肺와 大腸은 表裏 관계에 있어서 肺의 脈이 不及하면 大腸도 역시 영향을 받아 弱해지며, 大腸이 弱해지면 腸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자의 견해로는 下聞病音을 腸鳴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國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가을철 脈狀이 浮한 것 같다는 것은 어째서 浮하다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가을철의 脈은 肺에 속하고 西方金에 속하니 萬物이 收成하기 때문에 그 脈氣 오는 것이 가볍고 비면서 떠오르고 그 脈氣가 來하는 것은 急하고 去하는 것은 홀어지기 때문에 浮라 하니 이와 다르면 病脈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것이 다른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그 脈氣 오는 것이 터럭처럼 가벼우면서 증양은 堅固하나 양 가장자리가 공허한 것을 太過라 하니 病이 외부에 있고, 그 脈氣 오는 것이 터럭처럼 가벼우면서 微弱한 것을 不及이라 하니 病이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가을철의 脈이 太過하거나 不及할 때에 그 病의 症狀은 어떠한가? 岐伯이 대답하기를, 太過하면 氣逆하고 背痛하면서 가슴이 답답하여 舒暢하지 못하고, 『內經』에는 ‘溫溫’이 ‘慄慄’으로 되어 있다. 不及하면 그 사람이 숨이 차고 呼吸하는 氣運이 적으면서 기침을 하고 上氣가 되며 唾血이 보이고 목구멍 아래에서 담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考察】

本章의 내용은 『素問·玉機眞藏論』에서 인용한 것

33) “下聞病音; 下聞病音則有多種解釋: 一指喉下胸中可聞喘息之音. 如『太素·卷十四·四時脈形』注: ‘下聞胸中喘呼氣聲也.’ 二指咳嗽之音. 如『讀素問鈔』滑壽注: ‘上氣見血, 下聞病音, 謂喘而咯血, 次復咳嗽也. 下猶次也 復也.’ 三指欠氣, 如『素問經注節解·卷二』注: ‘病音 …… 蓋氣下泄而多屁, 故云下聞也.’ 四指呻吟之音, 因腎居下而上呻. 如『素問直解·卷二』注: ‘咳傷肺絡, 則上氣見血, 氣上不下, 則下聞病音. 病音, 呻吟聲也. 呻吟者, 下虛也.’ 諸注中似以『太素』, 『經注節解』注較切合實際.” 程士德 等;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p.506-507

이다.

第4章 肺의 平脈, 病脈, 死脈

【原文】

肺脈(1)來에 厭厭聶聶(1)하야 如落榆莢(2)을 曰肺平이요 秋엔 以胃氣로 爲本하니 難經에 云 厭厭聶聶하야 如循榆葉을 曰春平脈이요 藹藹(3)如車蓋하야 按之益大를 曰秋平脈이라하니라 肺脈(2)來에 不上不下(4)하야 如循雞羽(5)를 曰肺病이요 巢源에 無不字라 肺脈(3)來에 如物之浮하고 如風吹毛(6)를 曰肺死라

眞肺脈至가 大而虛하야 如以毛羽中人膚(4)하고 色赤白不澤하고 毛折하면 乃死라

秋胃微毛를 曰平이요 毛多胃少를 曰肺病이요 但毛無胃를 曰死요 毛而有絃(5)을 曰春病이요 絃其을 曰今病이라

【校勘】

- 1) 肺脈; 『素問·平人氣象論』엔 ‘平肺脈’으로 되어 있다.
- 2) 肺脈; 『平人氣象論』엔 ‘病肺脈’으로 되어 있다.
- 3) 肺脈; 『平人氣象論』엔 ‘死肺脈’으로 되어 있다.
- 4) 人膚; 『素問·玉機真藏論』엔 ‘皮膚’로 되어 있다.
- 5) 毛而有絃; 『校注』엔 ‘毛而弦’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厭厭聶聶; 가볍게 뜨는 모양(輕汎貌). 이에 대하여, 王冰은 “가볍게 뜨면서 속이 빈 것이다(浮薄而虛者也).”³⁴⁾고 하였다. * 厭; 安也, 편안할 염 * 聶; 附耳私小語, 소곤거릴 습

(2) 如落榆莢(여락유협); 느릅나무의 꼬투리는 가볍고 얇고 또 작아서 바람에 나부끼면서 떨어진다. 肺脈은 가볍고 浮하기 때문에 느릅나무 꼬투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에 比喻한 것이다.³⁵⁾ * 榆莢(유협); 느릅

34) 黃帝內經素問(王冰注); 中華書局聚珍版宋版印, 臺北, 1992, p.163.

35) “如落榆莢; 榆의莢輕薄且小, 風吹易落, 肺脈輕浮, 故以榆莢落下

나무의 씨꼬투리.

(3) 藹藹; 樹木이 繁盛한 모양이다. * 藹; 樹繁茂貌, 수목우거진 모양 에

(4) 不上不下(불상불하); 걸끄럽고 막혀서 舒暢하지 못한 모양.³⁶⁾

(5) 如循雞羽(여순계우); 脈象이 가볍고 속이 비면 서 걸끄러운 것을 겸한 것을 형용한 것이다.³⁷⁾

(6) 如物之浮 如風吹毛(여물지부 여풍취모); 뜨고 속이 비고 根底가 없고 흩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³⁸⁾

【國譯】

肺의 脈氣가 올 때 가볍게 떠서 느릅나무 꼬투리(榆莢)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肺의 平脈이라 하고 가을엔 胃氣로 根本을 삼으니 『難經』에 “脈의 搏動이 가볍게 떠서 느릅나무 꼬투리를 어루만지는 것 같은 것을 봄의 平脈이라 하고, 脈搏이 盛하여 수레의 덮개와 같아서 누르면 더욱 大한 것을 가을의 平脈이라 한다.”고 하였다. 肺의 脈氣가 올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서 닭의 깃털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것을 肺病이라 하고 『病源』에는 ‘不上不下’가 ‘不上下’로 되어 있다. 肺의 脈氣가 올 때 物體가 떠있는 것 같고 터럭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은 것을 肺의 死脈이라 한다.

肺의 眞藏脈이 이르는 것이 大하고 虛하여 깃털이 皮膚에 닿는 것과 같고 얼굴이 赤白色이며 潤澤하지 않고 毛髮이 부러지면 죽는다.

가을의 脈狀에 胃氣가 있어서 微毛한 것을 平脈이라 하고 毛脈이 많고 胃氣가 적은 것을 肺病脈이라 하고 단지 毛脈만 나타나고 胃氣가 없는 것을 死脈이라 하고 毛하면서 弦한 脈이 나타나면 봄에 이르러

比之”.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29.

36) “不上不下; 滯滯不暢貌”.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7.

37) “如循雞羽; 形容脈象輕虛兼澁”.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30.

38) “如物之浮 如風吹毛; 浮虛無根而散亂之狀”.

沈炎南 等;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87.

病이 발생하고 弦甚하면 방금 발생한 病이다.

【考察】

‘肺脈來 厭厭磊磊 …… 如風吹毛 曰肺死’와 ‘秋胃微毛 曰平 …… 絃甚 曰今病’은 『素問·平人氣象論』에서, ‘眞肺脈至 大而虛 …… 毛折乃死’는 『素問·玉機眞藏論』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第5章 肺의 五邪脈

【原文】

肺藏氣하고 氣舍魄하니 喜樂無極(1)則傷魄하고 魄傷則狂하고 狂者는 意不存人(2)하고 皮革(3)焦하고 毛悴色夭하니 死于夏라

秋에 金肺王하니 其脈浮濇而短을 千金에 浮를 作微라 曰平脈이요 反得洪大而散者는 千金에 作浮大而洪이라 是心之乘肺요 火之刻金이니 爲賊邪요 大逆이니 十死不治라 一本에 云 日月年數至四니 忌丙丁이라 反得沈濡而滑者는 是腎之乘肺요 子之扶母요 爲實邪니 雖病이나 自愈라 反得大而緩者는 是脾之乘肺요 母之歸子요 爲虛邪니 雖病이나 易治라 反得絃細而長者는 是肝之乘肺요 木之陵金이요 爲微邪(1)니 雖病이나 卽差라

肺脈來에 汎汎(4)하야 輕如微風吹鳥背上毛하고 再至를 曰平이요 三至를 曰離經이니 病이요 四至를 脫精이요 五至를 死요 六至를 命盡이라 手太陰脈也라

【校勘】

1) 微邪; 「廣本」엔 ‘虛邪’로 되어 있다. 木이 金을 侮한 것으로 微邪에 해당되기 때문에 「廣本」이 잘못된 것으로 思料된다.

【註釋】

(1) 極; 盡也, 다할 극

(2) 意不存人(의불존인); 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렵

성이 없는 것이다.

(3) 革; 卽膚內厚皮, 살갓 속의 두터운 가죽 혁

(4) 汎汎; 물 위에 뜨는 모양. * 汎; 浮貌, 뜰 범

【國譯】

肺는 氣를 간직하고 氣에는 魄이 깃드니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魄이 傷하고 魄이 傷하면 狂症이 발생하고 狂症인 사람은 주위를 無視하고 제멋대로 行動하고 皮膚가 마르고 毛髮과 顏色이 까칠하고 윤택하지 않으니 여름에 죽는다.

가을은 金에 속하여 肺가 旺盛하니 그 脈이 浮濇하면서 短한 것을 『千金』에는 ‘浮’를 ‘微’라고 하였다. 平脈이라 하고 도리어 脈狀이 洪大하면서 散한 것은 『千金』에는 “浮大하면서 洪하다.”고 하였다. 心이 肺를 乘한 것이고 火가 金을 克한 것이니 賊邪가 되고 크게 거스른 것이니 치료할 수 없어 모두 죽게 된다. 어떤 판본에는 “日月年數至四 忌丙丁”으로 되어있다. 도리어 脈狀이 沈濡하면서 滑한 것은 腎이 肺를 乘한 것이고 子가 母를 부족한 것이고 實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저절로 낮게 된다. 도리어 脈狀이 大하면서 緩한 것은 脾가 肺를 乘한 것이고 母가 子에게 돌아간 것이고 虛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쉽게 치료된다. 도리어 脈狀이 弦細하면서 長한 것은 肝이 肺를 乘한 것이고 木이 金을 壼신여긴 것이고 微邪가 되니 비록 病이 들었으나 곧 낮게 된다.

肺의 脈氣가 올 때 마치 가벼운 바람이 새 등위의 터럭에 부는 것 같이 가볍게 떠서 흘러 움직이고 一呼에 두 번 搏動하는 것을 平脈이라 하고, 一呼에 세 번 搏動하는 것을 離經脈이라 하니 病이 발생한 것이고, 네 번이면 脫精, 다섯 번이면 死脈, 여섯 번이면 命盡이라 한다. 이것은 手太陰의 脈狀들이다.

【考察】

‘肺藏氣 氣舍魄’과 ‘喜樂無極則傷魄 …… 毛悴色夭 死于夏’는 『靈樞·本神』에서 발췌 인용한 것이다.

第6章 肺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原文】

肺脈이 急甚하면 爲癲疾¹⁾이요 微急하면 爲肺寒熱이니 怠墮¹⁾하고 欬唾血²⁾하고 引腰背胸하고 苦鼻息肉³⁾不通이라 緩甚하면 爲多肝²⁾이요 微緩하면 爲痿偏風⁴⁾하야 一作漏風⁵⁾이라 頭以下汗出不可止라 大甚하면 爲腫腫이요 微大하면 爲肺痺⁶⁾로 引胸背가 起腰內라 小甚하면 爲飧泄⁷⁾이요 微小하면 爲消痺이라 滑甚하면 爲息賁⁸⁾上氣요 微滑하면 爲上下出血이라 澹甚하면 爲嘔血⁹⁾이요 微澹은 爲鼠瘦¹⁰⁾가 在頸支掖¹¹⁾之間하고 下不勝¹²⁾其上하야 其能喜酸³⁾¹³⁾이라

手太陰氣絕則皮毛焦¹⁴⁾하니 太陰者⁴⁾는 行氣하야 溫皮毛者也라 氣弗營則皮毛焦하고 皮毛焦則津液去하고 津液去則皮節傷하고 皮節傷者⁵⁾則爪枯毛折하고 爪字가 一作皮라 毛折者는 則氣先死⁶⁾라 氣字는 一作毛라 丙篤丁死하니 火勝金也라

肺死藏은 浮之에 虛하고 按之에 弱如葱葉하야 下無根者니 死라

右는 素問鍼經張仲景이라

【校勘】

1) 爲癲疾: 「繆本」엔 ‘爲癲病’으로 되어 있고, 「廖本」엔 ‘爲癩疾’로 되어 있고, 「朱本」, 「張本」엔 ‘爲瘖’로 되어 있다.

2) 多肝: 「周本」엔 ‘多汗’으로 되어 있다. ‘多肝’이라는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周本」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국역에는 이를 따른다.

3) 其能喜酸: 『靈樞·邪氣臟腑病形』엔 ‘其應善痿矣’로 되어 있다.

4) 太陰者: 『難經·二十四難』엔 ‘太陰者肺也’로 되어 있다.

5) 皮毛焦則津液去, 津液去則皮節傷, 皮節傷者: 『靈樞·經脈』엔 ‘皮毛焦則津液去皮節, 津液去皮節者’로 되어 있다.

6) 氣先死: 「經脈」엔 ‘毛先死’로 되어 있다.

【註釋】

(1) 怠墮; 게으름. * 怠; 懈也, 게으를 태 * 墮; 如惰通, 게으를 타

(2) 欬唾血(해타혈); 欬血과 唾血. 欬血은 소리만 있고 痰이 없으면서 목구멍으로 피가 나오는 것이다.

(3) 息肉(식육); 鼻痔의 별칭으로 鼻腔內에 혹(贅肉)과 같은 腫塊가 생기는 것이다.

(4) 偏風(편풍); 偏枯를 말하고 또한 半身不遂라고도 칭한다.³⁹⁾

(5) 漏風(누풍); 술을 마신 뒤에 風邪를 받아 늘 땀을 많이 흘리는 證.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는데 심하면 온몸에 땀이 축축히 나며 숨이 차고 바람을 싫어하며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證이다.

(6) 肺痺(폐비); 痺症의 하나. 皮痺를 오래 앓는 과정에서 다시 外邪를 받아 肺氣가 傷해서 생긴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가슴과 등이 아프고 기침이 나며 숨이 차고 때로 구역질이 나는 證이다.

(7) 飧泄(손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泄瀉하는 것이다.

(8) 息賁(식분); 肺積으로 얼굴빛이蒼白하고 오른쪽 옆구리 밑에 잔을 엮어놓은 것 같은 것이 있어 숨이 찬데 오래도록 낫지 않으며 오싹오싹 춥고 열이 나며 기운이 치밀어 오르고 등까지 아프며 눈이 어둡고 잊어버리기를 잘하며 심하면 皮膚 속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이 스물 스물하고 혹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는 病症이다.

(9) 嘔血(구혈); 嘔逆 소리와 함께 적은 량의 피를 토하는 것이다.

(10) 鼠瘦(서루); 瘰癧의 別稱이다. 瘡이 破潰된 후에 오랫동안 入口가 收斂되지 않아 瘻管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⁴⁰⁾

39) “偏風: 卽偏枯, 亦稱半身不遂”.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32.

40) “鼠瘻: 瘰癧之別稱. 因破潰后, 久不收口, 可形成瘻管”. 上揭書, p.132.

(11) 掖, 臂下, 겨드랑이 액

(12) 勝, 堪也, 견딜 승

(13) 其能喜酸(기태희산); 옛날에는 ‘能’字와 ‘態’字를 通用했으니 ‘其能喜酸’은 다리와 무릎이 軟弱하여 힘이 없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⁴¹⁾ * 能, 通態, 모양 태

(14) 焦, 乾也, 마를 초

【國譯】

肺脈이 急甚하면 癰疾이 발생하고, 微急하면 肺에 病이 들어 惡寒과 發熱이 발생하고 몸이 나른해지고 效血과 唾血을 뱉고 腰背胸까지 당기고 鼻에 息肉이 생겨 코가 막혀 고통을 받는다. 緩甚하면 땀을 많이 흐리고, 微緩하면 痿症과 半身不遂가 발생하여 어떤 板本에서는 ‘偏風’이 ‘漏風’으로 되어 있다. 머리 아래로 땀이 그치지 않는다. 大甚하면 脛部에 부종이 발생하고, 微大하면 肺痺가 발생하여 통증이 허리 속에서 생겨 胸背까지 당긴다. 小甚하면 飧泄이 발생하고, 微小하면 消痺이 발생한다. 滑甚하면 息賁으로 上氣가 발생하고, 微滑하면 上下로 出血이 발생한다. 瀼甚하면 嘔血이 발생하고, 微瀼하면 鼠瘻가 頸側과 腋下 사이에 생기고 下肢가 上半身을 지탱할 수 없어 무릎과 다리가 痠痛하고 軟弱해진다.

手太陰脈의 氣가 끊어지면 皮毛가 潤氣가 없이 마르니 太陰은 氣를 運行시켜 皮毛를 따뜻하게 한다. 氣가 營養하지 않으면 皮毛가 마르고 皮毛가 마르면 津液이 없어지고 津液이 없어지면 皮膚와 關節이 傷하고 皮膚와 關節이 傷하면 爪甲이 마르고 毛髮이 부러지고 ‘爪’字가 어떤 판본에는 ‘皮’字로 되어 있다. 毛髮이 부러지면 氣가 먼저 斷絶된 것이다. ‘氣’字가 어떤 판본에는 ‘毛’字로 되어 있다. 丙日에 危篤하고 丁日에 죽게 되니 火가 金을 勝한 것이다.

肺臟의 死脈은 浮取할 때 虛하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마치 파 얹처럼 弱해서 아래에 뿌리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죽는다.

이상은 『素問』, 『針經』, 張仲景의 글에서 引用한 것이다.

【考察】

‘肺脈急甚爲癰疾 …… 下不勝其上 其能喜酸’은 『靈樞·邪氣臟腑病形』에서, ‘手太陰氣絕則皮毛焦 …… 火勝金也’는 『靈樞·經脈』에서, ‘肺死藏 …… 下無根者死’는 『金匱要略』 「五臟風寒積聚病脈證併治第十一」에서 拔萃 引用한 것이다.

偏風에 대하여 小注에 어느 板本에는 漏風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의 ‘頭以下汗出不可止’는 漏風の 증상임으로 偏風을 漏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總括 및 結語

五臟의 平脈을 총괄하면 표 2와 같다.

표 2. 五臟의 平脈

	肝	心	脾	肺	腎
平脈	絃細而長	洪大而散	大而緩	浮濇而短	沈濡而滑

『醫學入門』에 “十變은 心脈이 急甚하면 肝邪가 心에, 微急하면 膽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이는 五行上 心·小腸의 뒤에서 온 것이니 虛邪가 되고, 心脈이 大甚하면 心邪 自體의 病이 心에, 微大하면 小腸邪 自體의 病이 小腸에 침입한 것이니 正邪가 되고, 心脈이 緩甚하면 脾邪가 心에, 微緩하면 胃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心·小腸의 앞에서 온 것이니 實邪가 되며, 心脈이 瀼甚하면 肺邪가 心에, 微瀼하면 大腸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心·小腸이 勝하는 것에서 온 것이니 微邪가 되며, 心脈이 沈甚하면 腎邪가 心에, 微沈하면 膀胱邪가 小腸에 침입한 것이고, 이는 心·小腸이 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온 것이니 賊邪가 된다.”⁴²⁾고 한 것을 살펴볼 때, 본 논문에 언급된 急은

41) “其能喜酸, 能古通態, 其能喜酸, 形容足膝酸軟無力之態”. 上揭書, p.132.

42) “十變 心脈急甚者 肝邪干心也 微急者 膽邪干小腸也 爲從後來者 爲虛邪. 心脈大甚者 心邪自干心也 微大者 小腸邪自干小腸也 爲正邪. 心脈緩甚者 脾邪干心也 微緩者 胃邪干小腸也 爲從前來者 爲實邪. 心脈瀼甚者 肺邪干心也 微瀼者 大腸邪干小腸

肝의, 大는 心の, 緩은 脾의, 濇은 肺의, 沈은 腎의 본
현의 脈임을 알 수 있다.

臟과 季節의 相生 相剋 關係를 相王廢囚死로 규정
지었고 臟과 臟의 관계는 虛實賊微邪로 論했다.

第3篇 脾胃部第三

第2章

‘懸根仕莖 草木之類也’에서 ‘仕’는 ‘住’字的 활자가
깨진 것이다.

‘尺遲而寸緩也’에서 ‘尺遲’는 ‘尺部의 脈이 無力하다’
는 것이다.

‘一作太’는 ‘一作土’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3章 脾脈의 正常脈과 太過 不及脈에 따른
病證

‘口然則脾善惡 可得見乎 曰善者 不可得見’에서 ‘正常
脈은 그 形狀을 볼 수 없다(善者 不可得見).’는 것은
絶脈이 아닌 胃氣가 있는 脈을 말한 것이다.

重強은 몸이 무거우면서 뻣뻣해지는 것으로 重은
臟氣가 重疊된 것이고 強은 氣가 和順하지 못한 것이
다.

第4章 脾의 平脈, 病脈, 死脈

‘長夏 胃微濡弱曰平 …… 但代無胃曰死’에서 ‘但代無
胃’는 정상적인 脈狀의 代脈이 아닌 長夏의 시기에 更
代하는 脈으로 軟弱한 脈狀만 나타나고 胃氣가 전혀
없는 脈인 死脈이다.

第5章 脾의 五邪脈

‘反得沈濡而滑者 腎之乘脾’에서 ‘腎之乘脾’가 「黃本」,
「朱本」, 「張本」에 ‘腎之乘肺’로 되어 있는데, 腎之乘脾

也 從其所勝者 爲微邪. 心脈沈甚者 腎邪中心也 微沈者 膀胱邪干
小腸也 是從所不勝者 爲賊邪”

李穉 醫學入門, 大尾文化社, 서울, 1990, p.429-430

가 옳다.

第6章 脾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微急 …… 後沃沫’에서 ‘後’는 ‘大便’을 가르킨다.

第4篇 肺大腸部第四

第2章

‘比時 陰始用事 陽卽下藏’에서 ‘比時’는 ‘此時’의 誤
字이다.

第3章 가을철의 正常脈과 太過 不及脈에 따
른 病證

‘不及則令人 …… 下聞病音’에서 ‘病音’은 목구멍 아
래 가슴속에서 喘息時 담 끓는 소리나 방귀소리로 볼
수 있으나 腸鳴으로도 볼 수 있다.

第5章 肺의 五邪脈

‘反得絃細而長者 是肝之乘肺 木之陵金 爲微邪’에서
‘微邪’를 「廣本」에는 ‘虛邪’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第6章 肺의 五邪脈 病證과 死證

‘緩甚 爲多肝’에서 ‘多肝’은 ‘多汗’의 誤字이다.

‘微緩 爲痿偏風’에서 ‘偏風’은 ‘漏風’으로 보아야 한
다.

參考文獻

1. 王叔和; 脈經, 東洋醫學研究會, 大阪, 1981
2. 王叔和; 脈經, 大學書局, 臺南, 1985.
3. 沈炎南;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4.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5. 吳承玉·王魯芬; 脈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6. 王叔和; 脈經, 蔣力生 校注,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高文謙 主編)
華夏出版社, 北京, 1997.

7. 王叔和; 晉王叔和脈經, 醫部全錄(第三冊), 中華民國假國立中央圖書館, 中華民國藝文印書館, 金泳出版社 影印, 서울, 1974.
8. 王叔和; 脈經, 中國醫學大成(第三冊),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9. 作者未詳; 王叔和脈經, 文光圖書有限公司, 年度未詳.
10. 王 冰注; 內經素問, 臺灣中華書局, 臺北, 1992.
11. 王 冰注;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91.
13. 鄭憲堂;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玉機真藏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14. 都金錄; 素問研究集成 第二卷. 平人氣象論,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益山, 2001
15.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 公司, 台北, 民國66.
17. 李克光 等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8. 滑 壽; 難經本義, 集文書局, 台北, 1982
19. 華 陀;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省, 1985
20. 巢元方; 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中 諸病源候論, 華夏出版社, 北京, 1997.
2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北京, 1998
22. 李景榮 等;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23. 李撻; 醫學入門, 大星文化史, 서울, 1990
24. 大韓韓醫診斷學會; 大韓韓醫診斷學會誌(第7卷-1號), 경희문화사, 서울, 2003
25. 朴 昞; 診斷學權輿, 大星醫學社, 서울, 2000.
26.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27. 鄧鐵濤 等;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台北, 1989
28. 朴 昞; 譯釋脈語, 大星文化史, 서울, 1997

參考辭典

1.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95.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94.
3. 劉渡舟; 傷寒論辭典, 解放軍出版社, 北京, 1988,
4. 謝 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93.
5. 傳統醫學研究所;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2001.
6. 張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서울, 1982.
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9
8. 李經緯 等; 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